

‘몸통설’ 근거 제시 압박받는 강기정의원 침묵 왜?

“맞대응땀 되레 공격 빌미만...” 판단

민주 “수사하면 될 일” 추가 의혹 제기 시사

안상수 “사실 못 밝히면 의원직 사퇴해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 의혹 관련설을 제기한 이후 여권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추가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자신 있으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기자회견을 해라”, “사실이라는 근거를 대라”는 등의 압박을 할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은 3일 발언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지금쯤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추가 자료나 폭로 여부에 대해서도 “뭐라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강 의원이 이처럼 여권의 공세에 대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맞대응이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여권에 공격의 빌미만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사실 여부를 떠나 강 의원이 추가 발언할 경우 여권이 이 내용을 토대로 다시 강 의원을 물어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민주당은 지도부가 강 의원의 폭로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추가 의혹 제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제보 등을 토대로 여권의

비리와 관련된 10건 안팎의 의혹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강 의원은 충분한 자료를 갖고 발언을 했고 저희는 상당한 백업 자료를 있지만 자제하고 있다”며 “영부인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있다. 심사숙고는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만약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 등의 압박을 할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은 3일 발언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지금쯤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추가 자료나 폭로 여부에 대해서도 “뭐라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여야 대표 무슨 말 할까

다는 의미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강 의원은 최고 권력과 관련 비리를 수집한 정보에 의해 폭로했다”며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청와대도 그렇게 깨끗하다면 과민반응을 보이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위원회를 하거나 촉구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날도 강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비난향한다면 (의혹 제기)를 계속하겠

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비난향한다면 (의혹 제기)를 계속하겠

식과 금도를 넘어서 ‘묻지마’ 허위 폭로 정치가 유행하고 집권 경험에 있는 제1야당이 대통령을 모독하는 허위폭로 정치를 조장, 비애를 느꼈다”며 “허위사실이 아님을 밝히지 못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책임 정치이고 정도 정치”라고 강 의원을 정조준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자기의 잘못을 알고 사과할 줄 아는 게 진정한 용기”라며 “강 의원의 발언이 잘못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자기의 잘못을 알고 사과할 줄 아는 게 진정한 용기”라며 “강 의원의 발언이 잘못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차별받은 F1 예산 지원, 공정사회인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국회는 3일 김황식 국무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갖고 G20정상회의 대책, 환율정책, 재정악화, 감세정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환율 문제와 관련, “원화환율 하락은 수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악화시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근로자의 임금 하락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윤석 의원은 “국가·공기업·공적 금융기관 부채를 모두 포함한 국가부채 835조원의 이자는 연 42

조원, 하루 1151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정부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있으며 뉴타운 공사 등 난개발 공사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남발하고 있다”고 정부의 부채 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서대전에서 목포까지 KTX로 2시간29분이나 걸리는데도 이보다 훨씬 거리가 먼 서울역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8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2013년까지 끝마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현재 예산 투입 상황을 보면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부산 아시아게임의

경우 경기장 공사비를 위해 30%인 3494억원이 지원됐고 이중 60%가 초기에 지원됐는데 F1대회에는 경기장 건설비의 15%만이 지원됐고 이마저도 경기 열리는 올해 지원되는 등 예산지원에서도 철저하게 차별받았다”며 “부산 아시아게임과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는 720억원과 933억원의 운영비가 각각 지원됐지만 F1 대회에는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공정사회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또 여야간 ‘부자감세 논란이 재연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공론화 전망

윤봉근 의장 “시·도의장단과 입법화 노력”

광역의원 유급 보좌관제 도입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전망이다.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의회는 더욱 많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면서 “특히 지방행정이 갈수록 전문화, 복잡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적 능력이 요구된다”며 유급 보좌관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의장은 이어 “광역의원 유급 보좌관제 도입은 전국 시·도의회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절실한 과제”라며 “이달 경남에서 열리는 시·도의장단

회의에서 광역의원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경우 전체 26명 의원 중 20명이 월 150만~200만원의 사비를 주고 보좌관을 고용하는 상황으로 의원직 외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일부 의원들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와관련, 현재 국회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김성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광역의원이 ‘인턴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인턴보좌관의 정원, 근무기간, 보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국회 의원은 1명당 7명의 보좌직원과 2명의 인턴사무원 등 9명의 보좌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며 “국회의원과 의정활동 범위는 다르지만 견제와 감시라는 같은 성격의 역할을 하는 광역의원들에게 유급 보좌관을 지원해주는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대통령 면책특권 발언 비판

손대표 “민주국가서 있을 수 없는 일”

한나라당 등 여권이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김윤옥 여자 로비 연루 의혹 제기와 관련,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면책특권 제한론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를 모았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3일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고 헌법에 보장된 면책특권을 없애야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절제된 표현을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면책특권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99년 당시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은 웃보비 의혹에 이희호 여사가 개입돼 있다고 했고, 2002년 김문수 의원은 권양숙 여사가 미등기 아파트를 전매했다고 폭로했으며 2007년 이재오 의원은 권양숙 여사가 정보비서

관 문제의 몸통이라는 발언을 했었다”라며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이고 민주당이 하면 불륜이나”고 반문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대선 때 사면권 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공약해놓고 사면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속이는 짓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처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언급한다면 누가 공감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면책특권이 없었다면 최고권력 실세에 대한 부정비리를 누가 국민에게 고발하겠느냐”며 “검찰은 강기정 의원의 폭로사건에 대해 당당히 수사하고 손이 달리면 특검을 도입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

“대포폰 지급 민간인 사찰 말라”

민주,靑에 총공세

민주당이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증거의 하나로 제시된 ‘대포폰’(명의를 도용한 불법 휴대폰) 문제와 관련, 3일 청와대에 총공세를 퍼부었다.

검찰이 민간인 사찰 관련 수사에서 청와대를 의식해 ‘박주기 수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주요한 사안인데도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김윤옥 여자 로비 의혹’ 발언 파문에 묻혀 잠정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더욱이 이귀남 법무장관이 지난 1

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대포폰’ 의혹에 대해 “재판 중인 법원에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정작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대포폰과 관련한 어떤 신문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거짓말’ 논란도 일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3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포폰을 지급해 민간인 사찰에 이용하는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청와대를 겨냥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 문제와 관련,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현섭 비리사건 연루

시·도의원 4명 민주 탈당

오현섭 전 여주시장 비리사건과 연루돼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회와 여주시의원 등 4명이 최근 탈당했다.

2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서모리 등 2명의 도의원과 정모씨 등 여주시의원 2명 등 총 4명은 당에 해를 끼치지 않고 싶다고 지난달 10일 탈당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전남도의회는 경우 62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47명으로 줄었다. 대신, 무소속은 6명으로 늘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전원별장주택

전남 보성 전원별장 주택 대지 350 견35 단층슬라브 창고30평 교통 좋고 조용하고 가격저렴 즉시 입주 가능 1억 주인적

5000평

전남 보성 계획 관리 대로접 5000평 완전평지 현황과수원 아파트 빌라 연수원 귀농등 최적 개발업자 환영 3억 주인적

문의 011-837-3140

“신축 매매·임대 (원룸·투룸) ”

원하시는 물건 있으신가요? 언제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에서 이전까지)

주소	동구 계림동	남구 범림동
대지m2/형	294 / 88.94	383.1 / 115.89
대지m2/형	651 / 193	650 / 197

매매 금액: 6억1천만원 (용자 1억 4천만원포함) / 7억9천만원 (용자 1억 5천만원포함)

건물내역: 원룸14개·투룸2개 4층 주인세대(최고급자재), 풀옵션 “수익성최고!” / 1층, 상가 점포 3칸 원룸 18개, 4층주인세대(아파트 50평형, 목실, 열풍, 최고급 자재)풀옵션, “수익성최고!”

임대 문의: * 원룸 : 보 200만원/월 30만원 / 투룸 : 보 300만원/월 43만원 (원, 투룸관리비포함) * 풀옵션, 즉시입주가, 위치좋은, 교통편리, 매매·임대 * 치평동 상가 165㎡(50평) 현재 성업중, 매 5억6천만원

장흥부동산 중개건설링

TEL. 062-369-0347

010-8625-3328 / 010-5050-8145

부동산 미분양

광주의 강남! **The 11 더실아파트**

25% 파격할인!

최대 1억2천만원 할인!

고층 대물 물건 최다 보유!

44py 54py 65py

공동중개 문의환영!!

분양대입 할인 물건 전문 중개회사

제석공인중개사

분양문의 062)673-3100

남성 휴대용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꿈꾸는 공주]

내 여자가 장안에 화제가 얼굴이며 몸매가 모델을 뺄지는 내 거기에다 흔들며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마법처럼 보드랍고 말랑거리는 피부 감각이는 눈동자 가슴과 신체 부위가 실재한데 키는 1m50이 되며 세시하니 꿈인지 생인지 헷갈린다. 분능적인 성욕을 해소하면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성”병의 예방도 되니 내여자가 인기 폭발 불씨가 난다.

주문량 폭주

※ 8만원 상당의 선물과 휴대용 가방도 드립니다.

(식약청 USA 통관제품)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지구력이 당당해 지므로 복용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1100-3108-08 안행연 생노병사 분노정생 복음 드립니다

사이텍 070-7786-6631 010-6306-7070 (미쓰고) 070-7786-9710 010-7102-7070

생각보다 좋은 비누 **평미인**

평미인은 (사단) 아세아-태평양 자연 의과학 연구 재단에서 제조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우리 몸 속 70% 물과 외부에서 씻는 물을 동조시켜 피부통로를 열리게 하여 몸속의 필요없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나오게 하는 원리입니다.

* **주요성분**

- 특수 숙성된 식물성 유지
- 살구씨 오일 및 분말
- 100% 천연향 로즈마리
- 천연신소재 HJ-1.2
- 글리세린

* **사용범위**

- 모든 환자의 전신 목욕
- 유아목욕, 노인 냄새 제거
-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 짙은 화장을 하는 여성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 환자를 많이 다루는 사람
-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 무좀, 습진, 비염)
- 치질로 고생하는 사람

비누 사용시 유의사항

- 5분간 2회 이상 비누 맛사지
- 보관시 다른 비누와 따로 보관
- 처음사용시 5분 2회 손 * 발 맛사지 후 사용

◆ **광주·전남·북 판매점 모집** ◆

상담문의 ☎ 010-3231-3665